

# 전북도 공무원교육원 명칭 변경

### ‘인재개발원’으로 개원 58년만에... 4차산업 도래·신 인재 양성 트렌드 반영 교육 실시

전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1961년 개원하여 58년 만에 전북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이는, 기존 지방공무원교육이라는 단순한 지식전달의 의미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 인적자원을 발굴·양성하고 청년전북을 견인하며, 나아가서는 도민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열린교육의 산실로써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지향하는 포부가 담겨있다.



전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전북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도 인재개발원 전경.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의 출범 배경 및 비전을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2월 11일부터 핵심리더과정을 시작으로 92과정, 200기, 9,766명 사이버 교육 470과정, 5,170기, 1만810명의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과정의 특징은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역량 강화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전라북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4차산업 도래와 신인재 양성 트렌드를 반영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이버 도민강좌를 최신 콘텐츠로 개편하고 자

신동원 전북도 인재개발원장은 “환경대지의 해 기해년을 맞아 인재개발원으로 새출발하는 만큼, 전북 대도약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첫단계이다”며, “직무지식 교육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미래지향적 창의·혁신·글로벌 인재양성, 도민의 잠재적 역량 개발 교육기능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3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 도, 군산·익산 등 중심으로 작업... 서부산림청 등과 협력키로

전북도는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 1차 방제에 이어, 2차로 올해 3월말까지 방제 대상목을 전량 제거하기 위한 방제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방제는 피해고사목은 물론 공원과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활권 주변 우량수목, 대면적 산림으로 보존가치가 큰 산림,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등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도에서는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피해고사목 발생분수를 매년 30% 이상씩 줄여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재선충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만들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재선충병 발생분수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8.8%가 (11,861본→4,887본) 감소했고, 올해 1.10. 기준으로도 50.1%가 (4,887→2,421본) 감소하여 발생밀도는 안정 추세에 있다.

또한 도와 협업방제 체계를 구축한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군산시와 임실군 일부지역 방제를 맡아 책임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재선충병 발생지역중 대규모 모두베기를 필요한 지역에 한해 최소화하고,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를 확대 시행은 물론 재선충병의 주 확산 원인이 되는 훈증처리를 줄여가며 그물망 피복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재선충병의 방제작업 시행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서부지방산림청, 도, 시군합동

으로 설계서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방제작업 후에는 방제작업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전문가와 함께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감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생태계에 의한 자연적인 확산보다 사람에게 의한 인위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벌채, 방제해 놓은 소나무를 가져가 화목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우리는 전북지기(知己)”

###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 10기 출범

#### 영상 제작자 등 전문가 선발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 가능

전북도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제10기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출범했다.

‘제10기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1일 전주한성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 구성된 기자단은 지난해부터 활동해온 우수 기자 14명과 신규 선발된 26명 등 총 40명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제10기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른 연령층과 함께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전북 외 다른 지역 거주자가 40%(16명) 비중을 차지해 전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기사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자단 중에는 여행전문 블로거와 각종 사진 공모전 수상자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영상, 일러스트 제작자 등 전문가들이 선발돼 한층 다양한 분야의 신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해마다 늘

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의 블로거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한 달 간 ‘2019년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했는데 40명 선발에 182명이 지원해 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181명이 지원(4.5대1)했고 2018년에는 198명(5.0대1)이 각각 지원하는 등 높은 지원율을 보여 전북도 블로그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전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이름에 걸맞게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수하고 다양한 전북의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단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받은 이희규(광주) 기사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라북도도는 항상 여행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이다”며 “좋은 기사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라북도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2009년 4월 개설돼 올해 1월 10년만에 누적방문자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광역지자체 분야 6회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설 명절 맞아 다중이용시설 실태 점검

### 오늘부터 24일까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개선여부 확인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생활과 직결된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도는 설 명절 분위기와 유동인구 급증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노후화된 건물 등 99개소에 대해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 동안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재난·시설관리 부서, 소방, 안전관리 자문단,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안전관리점검반이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운수시설 및 전통시장 등 99개소이고, 특히 이들 중 이용객이 많거나 노후된 16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표본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현지시정과 보수·개선 및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계절·이슈별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안전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민들이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19-44호

### 장수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장수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사

- 교통시설
- ① 도로 결정(변경)조사·장계 도시지역

구분	종류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신설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122	중(보) 1-2호선	소(국) 3-19호선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66	8	국지 도로	54	소(국) 1-16호선	소(국) 3-4호선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46	6	국지 도로	121	중(보) 2-5호선	소(국) 3-19호선	일반 도로		

②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16호선	○노선신설 · 폭원:10m, 연장:122m	○장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신설
-	소로2-66호선	○노선신설 · 폭원:8m, 연장:54m	
-	소로3-46호선	○노선신설 · 폭원:6m, 연장:121m	

2. 주민 공람기간  
- 공람기간: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3. 주민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4. 관계도서: 분임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063-350-2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장수군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